牡丹峰에서

앙당한 솔나무가지에、
훈훈한 바람의날개가스치고
얼음석긴 大洞江물에、
한나절햇발이 밋그러지다、

허무러진 城터에서
철모르는 女兒들이
저도모를 異國말로、
재질대며 뛈을뛰고。

난데없는 自動車가 밉다。

一九三六、三月、二十四日、

모란봉에서

앙당한 솔나무 가지에
훈훈한 바람의 날개가 스치고
얼음 섞인 대동강물에
한나절 햇발이 미끄러지다.

허물어진 성터에서
철모르는 여아들이
저도 모를 이국말로
재질대며 뛈을 뛰고.

난데없는 자동차가 밉다.

1936. 3. 24.